

英語의 母音記述과 그 問題點

金 順 澤

目 次

I. 序 論	2. 문제점
II. 母音의 調音	IV. 母音의 解釋
1. 분류기준	1. 해석법
2. 문제점	2. 문제점
III. 母音의 表記	V. 結 論
1. 표기법	

I. 序 論

英語의 母音 기술은 子音의 기술과는 달리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이 어려움은 母音을 분석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분류기준과 자료의 차이, 기호의 차이 및 해석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¹⁾

혀의 위치에 따라 母音이 분류된다는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정확한 혀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밝히는 것은 꽤 힘든 일이다. 게다가 母音을 表記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고, 二重母音을 해석하는 방법도 제각기 달라 바람직한 母音體系를 설정하는 데는 많은 난점이 따른다.

본고는 英語의 母音體系를 새롭게 기술하려는 예비단계로서 먼저 英語의 母音 기술의 방법과 여러 문제점을 母音의 분류기준과 表記法 및 해석상의 문제로 나누어 검토하는데 그 뜻이 있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제 2장에서는 母音의 調音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 보고, 제 3장에서는

師範大學 教授

1) H. A. Gleason, Jr.,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61), p. 313.

여러 音聲學者들의 母音表記法을 비교·고찰하며, 제 4장에서는 二重母音의 분류방법과 난점을 밝힌 후, 5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는 것으로 이 글의 순서를 정하려 한다.

II. 母音의 調音

1. 분류기준

學者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英語母音은 세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가 되고 있다. 즉 혀의 높이, 혀의 전후 위치, 입술의 원순성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²⁾ 혀의 높이는 高(High), 中(Mid), 低(Low)로 나뉘고, 혀의 전후위치는 前舌(Front), 中舌(Central), 後舌(Back)로 나뉘며, 입술의 모양은 圓脣(Round), 平脣(Unrounded)으로 구분된다.

高母音은 아랫턱이 높이 올라와 혀의 표면이 입천정에 아주 가깝게 된 경우이고, 中母音은 아랫턱이 보통으로 벌어져 혀가 입천정에서 좀 떨어진 경우이며, 低母音은 아래턱이 많이 벌어져 혀의 위치가 아주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 前舌母音은 입안에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앞에만 있는 경우이며, 中舌母音은 가운데 올 때이고, 後舌母音은 뒤에 올 경우를 말한다. 圓脣은 입술의 모양이 둥글게 된 경우이고, 平脣은 입술을 오므리지 않는 경우이다.

이같은 母音의 분류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은 그 세 분류기준을 도표화 했을 때 가능해진다. 혀의 위치를 고려한 다음의 도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³⁾

	front	back
high	1.	
mid	2.	.7
	3.	.6
low	4.	.5

도표1. 혀의 상대적 위치 1 heed, 2 hid, 3 head, 4 had, 5 father, 6 good, 7 food

이 도표를 통해 혀의 위치를 정확히 말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표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혀의 가장 높은 지점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eed, hid, head, had 등을 차례로 발음하면서 혀의 위치를 관찰해 보면, 혀의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前舌母音과 後舌母音의 경우에도 he와

2) 이 기준 이외에 學者에 따라 發聲器官의 緊張法(Tenseness)를 들고 筋肉이 緊張하면 緊張音(Tense)으로, 弛緩하면 弛緩音(Lax)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도 역시 혀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3) P. Ladefoged,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2), p. 13.

who를 대조해서 발음해 보면 혀가 앞에서 뒤로 움직여 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입술도 平唇에서 圓唇으로 변화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母音의 분류기준 가운데 혀의 위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입술의 모양이나 연개개의 개폐상태, 緊張度の 有無등은 혀의 위치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부차적인 분류 요소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英語의 母音體系를 설정할 경우 혀의 위치에 따른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2. 문제점

앞 절에서 英語의 母音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혀의 위치를 본 바 있다. 혀의 위치한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인 지점이 된다. 즉 절대적인 혀의 위치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대체적이고 인상적이면서 상대적인 위치라는 것이다.⁴⁾ 그러므로 혀의 정확한 위치를 밝혀 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된다. 이같은 혀의 상대적 위치 때문에 母音體系를 기술하는 일도 그 만큼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혀의 위치에 따른 母音의 분류기준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같은 高母音이라 하더라도 前舌母音이나 後舌母音이나에 따라 혀의 높이가 다르다. 오히려 前舌中母音 때의 혀의 높이와 後舌高母音 때의 혀의 높이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같은 後舌母音이라 하더라도 後舌性(backness)의 정도차가 심하다. 다시 말해 도표상의 father, good, food는 서로 後舌的인 성격의 차이가 많이 난다. 셋째, 혀의 모습에 대한 고려가 없다. 前舌母音과 後舌母音은 혀의 모양 자체로도 충분히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母音을 기술하는 것이 子音을 기술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母音의 유형과 유형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데 있다.⁵⁾ 子音의 경우는 그 범주들이 훨씬 뚜렷이 구별되므로 어떤 소리가 破裂音이거나 摩擦音이거나 어느 한쪽에 속하지 중간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나 母音은 高母音과 中母音 사이에 얼마든지 다른 母音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혀의 위치가 일정치 않아서 이론상으로는 두개의 母音 사이에 얼마든지 중간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A. J. Bronstein도 혀의 위치에 관한한 자의적(arbitrary)이며 편의에 의해(conventionally) 구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A. J. Bronstein, *The Pronunciation of American English*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60) p. 136 참조할 것.

5) P. Ladefoged, op. cit., p. 72.

Ⅲ. 母音의 表記

1. 表記法

혀의 상대적 위치 못지 않게 母音體系 설정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은 분석자 마다 다른 母音의 表記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表記상의 차이는 音韻分析상의 차이를 가져와 英語의 母音기 술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 여러 학자들의 서로 다른 母音의 表記法을 비교하고 音韻分析상의 차이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여러 학자들의 상이한 母音表記法을 하나의 도표로 나타내 보자.

Jones	Ward	Kenyon	Thomas	Pike	Fries	Trager- Smith	Prator & Robinnett	Ladefoged
i:	i	i	i	i	i	iy	iy	i
i	I	I	I	I	I	i	I	ɪ
ei	eI	e	e	e	e	ey	ey	eɪ
e	ε	ε	ε	ε	ε	e	ε	ε
æ	æ	æ	æ	æ	æ	æ	æ	æ
u:	u	u	—	u	u	uw	a	ɑ
u	U	U	u	U	U	u	a	ɒ
ou	oU	o	o	o	o	ow	ɔ	ɔ
ɔ:	ɔ	ɔ	ɔ	ɔ	ɔ	ɔn	ow	oʊ
ɔ	ɒ	ɒ	—	—	—	ɔ	U	ɔ
ɑ:	ɑ	ɑ	ɑ	a	a	ah	uw	u
ʌ	ʌ	ʌ	ɑ	ə	ə	ə	ə	ə ʌ
ə	ə	ə	ʌ	ə	ə	ə	ay	aɪ
ə:	ɜ	ɜ	ɜ	—	—	əh	aw	aʊ
—	—	ɝ	ɝ	r	ər	ər	ɔy	ɔɪ
—	—	ɞ	ɞ	r	ər	ər	ər	ə ə
ai	aI	aI	aI	a ⁱ	aI	ay		
au	aU	aU	aU	a ^u	aU	aw		
ɔi	ɔI	ɔI	ɔI	o ⁱ	ɔI	oy		

도표2. 여러학자의 모음의 상이한 표기법

Jones⁶⁾는 英國의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南部方言(Southern British)을 대상으로 母音을 설정하고 있다. 즉 容認發音(Received Pronunciation)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Jones는 音素만을 간편하게 나타내는 簡略表記法(broad transcription)으로 單母音과 長母音, 二重母音을 표시하고 있다. 도표상의 長母音과 單母音은 장음기호[:]로 구별되고 있는데 장음기호의 有無는 音量(quantity)의 차이 보다는 音質(quality)의 차이에서 의존하고 있다. 이 表記法은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母音分類에 해당되고 있다.

Ward⁷⁾의 母音 기술도 Jones의 체계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南部容認發音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母音 기술은 유사한다. 다만 Ward는 異音의 차이를 고려하는 精密表記法(narrow description)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Jones와는 다르다.

Kenyon⁸⁾과 Thomas⁹⁾도 약간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Jones와 Ward의 음성기호를 근본적으로 채용하여 美國 中西部方言의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Kenyon은 美國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一般美語(General American)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Kenyon은 Jones의 /i:, u:, ə: a:/ 대신 단일기호 /i, u, ʌ, a(æ)/를 썼고, 철자에 r이 들어있을 때에는 強勢形으로 /ɜ:/, 弱勢形으로 /e/를 사용하고 있다.

Pike¹⁰⁾와 Fries¹¹⁾도 근본적으로 Kenyon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은 /ay, aw, ay/를 二重母音으로 표기하고 /iy, ey, uw, ow/는 單母音의 기호 /i, e, u, o/로 나타내려 하고 있다.

Trager와 Smith¹²⁾는 美國英語의 한 방언만을 분석한 학자들과는 달리 英語와 美語의 모든 방언에 적용되는 이른바 總合型(overall pattern)의 母音 분석으로 /i, e, æ, ɪ, ə, a, u, o, ɔ/ 등의 9개 單母音이 설정되고 /y, w, h/ 등의 3개의 半母音이 제시되고 있다. 이 3개의 半母音은 9개의 單母音과 결합하여 27개의 가능한 二重母音을 형성하게 된다.

Prator와 Robinett¹³⁾는 표기의 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母音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母音 사이의 音質差를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母音體系는 모든 言語的 대립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기호의 체계를 사용하려고 한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Ladefoged¹⁴⁾의 母音 기술은 Kenyon과 흡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
- 6) D. Jones,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50).
 - 7) I. C. Ward, *The Phonetics of English* (Cambridge: W. Heffer & Sons, 1945).
 - 8) J. S. Kenyon, *American Pronunciation*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1950).
 - 9) C. K. Thomas, *An Introduction to the Phonetics of American English* (New York: Ronald, 1947).
 - 10) K. L. Pike, *Phonemics*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1947).
 - 11) C. C. Fries,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1945).
 - 12) G. L. Trager & H. L. Smith, *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Washington, 1957).
 - 13) C. H. Prator & B. W. Robinett,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1)
 - 14) P. Ladefoged, op. cit.

면에서 그들의 母音體系는 상이하다. 첫째, Ladefoged의 체계는 Kenyon이 사용하는 / I/ 와 / U/ 에 / i/ 와 / ʊ/ 를 이용하고 있다. 둘째, bait와 boat의 母音을 Ladefoged는 / e, o/ 로 표기하지 않고 / ei, oʊ/ 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자들 마다 서로 다른 母音의 表記法을 검토해 왔다. 각 表記法은 그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들이다. 그러나 각 表記法에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音韻分析상의 차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2. 문제점

Jones와 Kenyon의 母音 기술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長母音과 單母音의 대립을 인정한 반면 후자는 그것이 없다는 점이다. 즉 Jones의 英國 南部方言에서는 母音의 길이가 音韻의이지만 Kenyon의 美國 中西南方言에서는 非示差的이다. 따라서 母音體系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音質과 音量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이들의 주된 변별적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만약 英語母音에 있어서 長單이 示差的 특징이 되지 못한다면 Jones의 長音기술은 Kenyon식으로 표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들의 차이는 音量의 차이라기 보다는 音質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Jones와 Ward 및 Kenyon의 경우 above를 / əbʌv/ 로 표기하는데 따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ə/ 는 弱音節에만 오만 / ʌ/ 는 強音節에만 오므로 이들은 相補의 分布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相補의 分布에 있을 경우 한 音素의 異音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 ə/ 와 / ʌ/ 는 한 音素로 묶여져야 한다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실제 도표상에서도 Fries, Pike, Trager와 Smith등은 그것을 / ə/ 로 통합하고 있다. Kenyon의 / ɜ/ 와 / ɔ/ 도 같은 이유로 해서 한 音素로 분석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Pike와 Fries의 분석방법에도 여전히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 ay, aw, oy/ 를 二重母音으로 분석하고 / iy, ey, uw, ow/ 를 單母音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言語學者들도 이같은 분석상의 차이를 허용할 만큼 충분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¹⁵⁾

이 밖에 Trager와 Smith가 분석한 母音體系에도 몇가지 석연치 못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中舌母音 / ɹ/ 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그들은 just가 부사일 때 / ɹ/ 로 나타나고 형용사일 때는 / a/ 로 나타난다고 한다. Gleason도 이같은 표기가 美國人의 發音에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¹⁶⁾ 그러나 / ɹ/ 와 / ə/ 의 대립은 오히려 強勢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英語에 있어 부사인 just는 대체로 minor

15) H. A. Gleason, op. cit., p. 320.

16) Ibid., pp. 322~323.

stress를 받고 형용사인 just는 major stress를 받는다. 따라서 /t/ 는 /i/의 強勢 또는 音調에 의한 異音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올 법하다.

아울러 Trager와 Smith의 總合的인 분석체계는 美國의 전역에 걸친 광범한 조사이긴 하지만 그들의 설정한 母音體系가 美國의 모든 지방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지방마다 發音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ow의 發音은 中西部에서 /kaw/로 南部에서는 /kæw/로 들리고 road는 어떤 方言에서는 /rowd/로 다른 지방에서는 /rawd/로 發音되고 있다는 것이다.

IV. 母音의 解釋

1. 해석법

子音의 기술보다 母音分析이 어려운 것은 二重母音을 다루는 관점이 學者마다 일치하지 않은 데도 그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二重母音이란 두개의 母音이 연결되었지만 2音節이 아닌 1音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다. 연결된 두 母音 가운데 하나의 母音이 音節主音(syllabic)이 되고 다른 母音은 音節副音(nonsyllabic)이 되는 것이다.

Trager와 Smith에 의하면 9개의 單母音에 3개의 半母音이 있는데 이론상 하나의 單母音에 하나의 半母音이 합하여 二重母音이 된다고 한다면 모두 27개의 二重母音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二重母音에 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르다는 데 그 난점이 있다.

音韻理論상 문제가 되는 것은 二重母音이나 또는 長母音이나 하는 것이고 二重母音이나 長母音인 경우 그들의 구성을 단일 音素로 볼 것이냐 아니면 두개의 音素의 연결로 볼 것이냐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二重母音에 대한 몇가지 관점을 앞 母音體系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Jones는 beat, palm, boot, bought, curt의 /i:, a:, u:, c:, a:/를 長母音으로 인정하고 make, home의 /ei, ou/를 二重母音으로 취급하고 있다. Kenyon은 Jones의 分析法에 반대하여 Jones의 長母音을 單母音으로 표기하고 있다. Kenyon이 이같은 分析을 하는 이유는 美國英語에서 母音의 길이가 子音과 달리 示差의으로 못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Kenyon은 音質을 변별적 특징으로 보고 /bit/ : /bIt/로 해석하고 있으며 音量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¹⁷⁾

Thomas는 二重母音의 성질 /e, i, u, o/는 gay에서 보듯 어미에서 현저하게 들리고, 弱音을 가진 vacation과 chaotic 등에서는 아주 약하게 들린다고 보고 있다.¹⁸⁾ 따라서 이들을 변별적 音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7) J. S. Kenyon., op. cit., p. 73.

18) C. K. Thomas. op. cit., p. 73.

Pike와 Fries는 /aɪ, au, ɔɪ/ 를 二重母音으로 간주하고 /i, u, o, e/ 는 單母音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Pike가 /aɪ, au, ɔɪ/ 를 A그룹, /i, u, o, e/ 를 B그룹으로 나누어 一般美語를 모국어로 삼는 700명의 학생들에게 母音의 인식여부를 조사한 후 얻어진 결과이다. 그에 의하면 音調의 強勢위치에 올 경우에는 A, B 두 그룹이 모두 二重母音이 되지만 弱勢 위치에 올 때에는 B그룹은 二重母音의 성질을 잃고 單母音으로 된다는 것이다.¹⁹⁾

Bloch와 Trager는 單母音의 長母音을 인정하고 분포를 위주로 母音分析을 하고 있다.²⁰⁾ 그들은 calm, father의 /a:/, caught, law의 /o:/ 의 母音의 길이는 앞에 있는 母音의 音聲의 성질의 계속으로 인정하고 半母音 /h/ 音과의 유사성과 그 분포로 보아 /h/ 의 異音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Kurath는 二重母音을 母音과 子音의 결합으로 보는데 반대하고 있다. 그는 母音 앞 /h/ 의 역할은 입술과 혀의 위치가 아니고 마찰이라 하고 있다. 그리하여 二重母音을 摩擦音과 半母音의 結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 문제점

二重母音을 단일 音素로 취급한 Jones와 Kenyon의 二重母音 分析상의 문제점은 音量과 音質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音量의 차이에 중점을 두면 長母音으로 표시되고 音質의 차이에 비중을 두면 單母音으로 표시가 된다.²¹⁾ 이것은 그들이 英國의 南部方言과 一般美語를 고찰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母音을 분석할 경우 분석자료의 차이가 母音 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音聲의 성질을 중요시하여 분석한 Pike와 Fries의 母音 기술에도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다. A와 B 두 그룹이 強勢를 받거나 弱勢를 받는 경우에 따라 二重母音의 분석방법이 달라진다고 하고 있으나 弱勢를 받았을 때 A그룹이나 B그룹이나 다 強勢를 받았을 때 만큼 二重母音의 성질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그룹의 구별은 인정받기 곤란하여 전부 單母音으로 취급하던가 전부 二重母音으로 다루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는 半母音 /h/ 를 설정한 Trager와 Bloch의 母音 분석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자. 그들에 따르면 母音 앞의 /h/ 와 母音 뒤의 /h/ 를 相補的 分布를 갖는 異音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yV/ 와 /wV/ 앞에 /h/ 가 나타나 -huge, wheat- /h/ 를 半母音으로 할 때 이들 單語에서 半母音+半母音의 연결이 되어 音素排列原則에 어긋나게 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19) K. Pike, "On the Phonemic Status of English Diphthongs," *Language* 23, 1947, pp. 151~159.

20) B. Bloch & G. L. Trager,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42), pp. 50~51.

21) H. Kurath, "The Binary Interpretation of English Vowels: A Critique," *Language* 33, 1957, pp. 111~122.

22) A. C. Gimson,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London: Arnold, 1962), p. 99.

다.

Trager와 Smith의 母音體系에도 약간의 난점이 있다. 한 單語가 지방에 따라 달리 發音되는 경우 그들의 體系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fare는 [fæa]로 發音되는 경우와 [fæə]로 發音되는 때가 있다. 이 경우는 /eh/로 기술할 수 없고 /æh/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baa[bæ:]를 표기할 때와 동일한 분석이 되어 /eh/는 겹이 생기고 /æh/는 두 가지 소리가 서로 겹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아울러 Trager와 Smith는 二重母音を 母音과 半母音의 결합으로 보면서 /y, w/ 외에 /h/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表記法은 英語發音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느낌을 갖게 해준다.

V.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英語의 母音體系를 기술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거론해 왔다. 母音 기술의 어려움은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의 분류기준과 자료 및 기호와 해석의 차이 등에 따라 결정된다.

혀의 위치를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절대적인 혀의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혀의 위치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개념인 바 분석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高母音이라 하더라도 前舌과 後舌에 따라 혀의 높이가 다르며 같은 後舌母音이라도 後舌性的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학자들마다 상이한 母音의 表記法을 사용하는 것도 母音 분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각 表記法은 방언의 차를 고려할 경우 그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들이나 表記法의 차이가 音韻分析상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주목하면 전술한 表記法상의 문제점들은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二重母音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母音 분석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지적 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二重母音이나 또는 長母音이나 하는 것이고 二重母音이나 長母音으로 분석된 경우에도 그 구성이 단일 音素인가 혹은 두 개의 音素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이같은 母音에 대한 해석은 곧 母音과 母音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없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母音은 子音과 달리 범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두 母音 사이에는 얼마든지 다른 中間音이 존재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母音體系는 調音的인 측면으로만 기술되어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音響音聲學이나 聽覺音聲學的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 調音·音響, 聽覺的 方面의 상호보완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Summery

The Description of the English
Vowels and Its Problems

Kim Soon-taek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various vowel systems and their problems as a preliminary step for setting up a desirable vowel system of the writer's own. The articulation of vowel sounds, transcription of vowels and the diphthongal interpretation are discussed here with much emphasis on the problems of the English vowel system.

Vowels are generally described in terms of the height of the body of tongue. But it is difficult to find out where the precise tongue position is, for the positin of the body of the tongue is not absolute but relative. This arbitrary quality of the tongue position has agreat effect on describing the vowel system.

Furthermore, the different transcriptions of English vowels used by the authors make the phonemic analysis complicated. Especially the various treatments of the long vowels and diphthongs give rise to the main variations of interpretation of the English vowels.

In fact, these difficulties are connected with the fact that there are no distinct boundaries between one type of vowel and another. The categories of vowels are less distinct than those of consonants. In theory, it is possible to make a vowel at any specified distance between two other vowels.

Therefore, it is unsatisfactory to use only the traditional articulatory descriptions in order to establish the economical vowel system. The acoustic and auditory ones should be essential for describing the desirable English vowel system in addition to the articulatory statements.